



Issue Report

2025. 11. 28.

천안형 도시·치유농업 추진 연구

박 경 철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연구위원
kcpark@cni.re.kr

CONTENTS

- 1. 서론
- 2. 도시·치유농업 정책 현황
- 3. 천안시 도시·치유농업 실시 현황 및 개선점
- 4.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5. 천안형 도시·치유농업 추진 방향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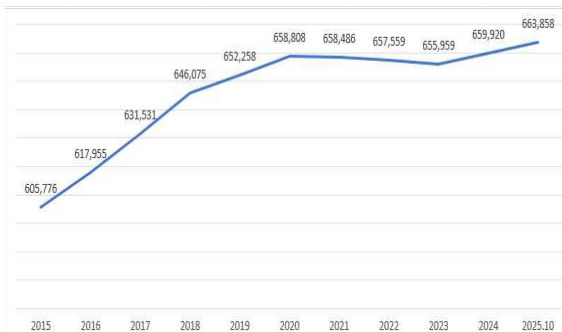
- 천안시는 빠른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천안시는 도시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도시·치유농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본 연구는 도시민의 참여 확대, 고령화 대응, 교육복지 수요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을 유기적으로 연계·융합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 및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향 제시
- 연구에서는 천안시 도시농업, 치유농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천안시 도시·치유농업의 추진 방향을 제시;
 - 1) 사회적 수요에 따른 도시·치유농업 사업 확대
 - 2) 도시·치유농업의 전문화를 통한 접근권 확대
 - 3) 시민의 기본권으로써의 도시·치유농업 활성화
 - 4)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도시민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도시농업 서비스 창출
 - 5) 전문인력 육성과 네트워크 강화
 - 6) 천안형(공공형) 치유농업(케어팜) 거점 마련 등

01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천안시는 빠른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각종 도시문제 발생

- 천안시 인구는 2015년 기준 605,776명에서 2025년 10월 기준 663,858명으로 인구 증가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음
- 천안시는 수도권과의 지리적 인접으로 각종 산업단지 조성과 교통인프라 시설 등의 확충으로 난개발, 생태계 파괴, 공동체 해체, 도농격차 심화 등의 문제 부상



천안시 인구 증가 추세

천안시, 난개발 우려지역 356개소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 지정구역 지정 ▲ 승인 2024.04.29 15:27 ▲ 12면

▲ 성장관리계획 수립...최대 건물용 10% 용적률 25% 상향



천안시천안시가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 대해 체계적 관리편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천안시의 도시 난개발 우려(대전일보 2024.1.29.)

[그림 1] 천안시 인구 증가 및 도시 개발 확대

○ 천안시 도시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도시·치유농업을 지속 추진

- 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그동안 삭막한 도시 공간을 먹거리 자급, 경관 미화, 생태환경 보전, 공동체 형성으로 바꾸는 작업을 꾸준히 수행
- 특히 최근에는 현대인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심신의 안정,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꾸준히 전개

- 최근 도시·치유 농업 정책 및 트렌드 변화에 따른 대응 필요
 - ICT와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의 도시농업·치유농업 활용 증대
 -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전문화, 세분화에 따른 응용 분화 확대
 - 탄소중립, 기업의 사회적 책임, 먹거리 자급 등 도시의 기능과 역할 변화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짐
 - 도시민 참여 확대, 고령화 대응, 교육복지 수요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을 유기적으로 연계·융합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와 정책 효과 극대화 방안 제시
 - 이를 위해 최근 도시·치유농업의 동향 분석, 천안시의 도시·치유농업 현황 분석, 선진 사례 분석 등을 실시

1. 도시농업의 개념 및 동향

1) 개념 및 범위¹⁾

○ 도시농업의 개념

-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 내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체험 등의 목적으로 농작물, 수목, 화초재배 및 곤충(양봉)을 사육하는 행위
- 도시농업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지역사회지원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지산지소(地產地消), 지역농업, 로컬푸드(Local food), 농민시장 등이 있음

○ 도시농업의 범위

- 채소텃밭: 가족과 이웃 그리고 공동체의 먹거리를 위한 도심의 농사 공간
- 옥상정원: 건물의 외피인 옥상이나 지붕에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
- 주택정원: 주로 개인이나 공동 주택에 조성된 정원
- 가로화단: 도시의 미관 형성과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 조성된 공간
- 테마정원(Theme garden): 사용하는 식물의 유형, 색채, 기능에 따라 조성된 정원
- 주말농장: 주로 가족단위로 채소 등을 가꾸는 도시 근교의 농업체험장
- 스쿨팜(학교농장, 생태학습장): 학교공간에 농장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농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공간
- 공동체 정원(Community garden): 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접

1) 농촌진흥청. 2021. 도시농업(농업기술길잡이 178).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지역에 조성한 정원

- 이외에도 반려견, 곤충, 관상조, 관상어를 활용한 도시농업이 존재

○ 도시농업관련 법률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3.3.23.)

○ 도시농업의 기능

- 도시농업은 크게 사회적 기능, 경제적 기능, 환경적 기능, 교육적 기능을 가짐.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 도시농업의 기능

구분	내용
사회적 기능	공동체문화 회복 생산적 여가 활동 심신 치유, 스트레스 해소 가족·이웃 소통과 화목
경제적 기능	녹색경제 기반 마련 건강증진(신체활동, 건강먹거리 등) 녹색 일자리 창출 사회문제 해결로 사회적비용 절감
환경적 기능	자연순환형 도시 생태계 녹지율 확대 및 생태계 복원 공기 정화와 생활 환경 개선 도시열섬화 및 지구온난화 완화
교육적 기능	농작물 재배활동을 통해 노동의 가치와 보람 체득, 자연계의 순환과 생명의 신비로움 인지

자료: 서울농부포털 서울도시농업. '도시농업 정의' 내용 보완 정리



도시농업 공간 확대



공동체 회복



시민주도



체험기회 확대



환경문제 해소



미래도시농업 구축

자료: 서울농부포털 서울도시농업

[그림 2] 도시농업의 역할(서울시 사례)

2) 최근 변화 동향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시농업

- ICT와 AI를 기반한 실내 농장(스마트팜, 수직농장) 확대
- 도심 내 도서관, 복지관, 학습관 등에도 실내형 스마트팜 설치

○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농업 활동 강화

-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해 도시(근교) 텃밭 등에서의 사용 확대
- 상시적인 가뭄 등 물 부족에 대비한 빗물 재활용 등 순환형 생태 시스템 구축

○ 사회적 기능과 가치 중시

- 농업 생산, 장터 개설, 공동부엌 등의 활동을 통한 도시 내 공동체 강화
- 도심 내 텃밭 개설 및 관리 등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전략과의 연계

- 탄소 흡수를 위한 도시녹화 조성 확대
-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 도시농업 활용 강화

2. 치유농업 정책 동향

1) 개념 및 범위²⁾

○ 치유농업의 개념

-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 자원이나 이를 이용해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
- 농업 선진국에서는 치유농업, 사회적 농업, 녹색치유농업, 건강을 위한 농업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며 본질적으로는 ‘치유를 제공하기 위한 농업의 활용’이라는 의미

○ 치유농업의 범위

- 치유농업의 범위는 채소와 꽃 등 식물뿐만 아니라 가축 기르기, 산림과 농촌문화자원을 이용하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며 그 목적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의료적·사회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활동이 해당
- 일반 농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농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의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농업을 활용



자료: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농사로) 「치유농업」

[그림 3] 치유농업의 개념도

2)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농사로)의 「치유농업」을 참고해 정리

○ 치유농업 관련 법률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 2024.06.21)

2) 정책 동향

① 치유농업의 기본 방향

○ 비전

- 건강한 국민과 활력있는 농업·농촌

○ 목표('26)

-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확산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효과 검증 19종,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자 수 60만 명)
- 농촌 활력화를 위한 치유농업 사업모델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다각화된 치유농업사업 모델 20종, 치유농업 관련 일자리 창출 1,700개)

○ 4대 분야(13개 과제)

- 연구개발: 자원발굴 및 특성 분석,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개발, 효과검증 및 원리 구명 연구, 신산업 기술 및 사업모델 개발
- 기반구축: 실태조사 및 종합정보망 구축, 거버넌스 구축, 법·제도 기반연구
- 성과확산: 거점기관 및 보급체계 구축, 개발기술 보급, 전문인력 양성
- 사업화 촉진: 치유농업 품질 관리 체계화, 창업지원·개발기술 현장 실용화, 대국민 인지도 제고·국제협력 교류



자료: 농촌진흥청 치유농업ON 치유농업정책

[그림 4] 치유농업의 기본 방향

②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실시

○ 목적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신뢰 제고 및 치유농업 서비스의 품질향상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품질인증 요건, 절차,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치유농업 확산기반 마련

○ 대상

- 치유농업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 * 적합한 치유농업서비스 시설·환경을 갖추고, 체계적인 치유농업서비스 경영, 인적자원 역량을 보유하고, 치유농업서비스와 관련하여 운영관리 계획이나 방안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 사업장

○ 인증 기준

- ① 경영, ② 인적자원, ③ 프로그램, ④ 시설·환경 등 4요소로 구성

○ 시행 연도 및 유효기간

- 시행 연도: 2025년
- 유효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간 유효

○ 인증 표시



[그림 5] 우수치유농업시설 인증 표시

1. 천안시 도시농업 현황

1) 추진 근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시농업법) (2012. 5. 23. 제정)
- 천안시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 8. 12. 제정)
- 천안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4. 2. 1. 제정)

2) 도시농업관리사³⁾ 양성 프로그램

-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2022. 3. 29)
- 교육 현황
 - 천안시 도시농업관리사 양성 교육 실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현재 기준 교육 인원은 총 125명, 자격취득 인원은 77명 수준
 - 2023년 이후로 교육 인원은 20명, 자격취득 인원은 10~13명에 달함

3) 도시농업관리사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도시농업관리사)’로 명시됨. 도시농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인원 40명당 도시농업관리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 도시농업관리사의 직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도시농업 교육 및 해설, 공동체 텃밭 운영 및 실습 지도, 복지 및 체험학습/농업 프로그램 운영, 공공기관 및 지자체 연계 활동, 도시농업 기반 조성 및 컨설팅, 지역농산물 유통 및 마케팅 등으로 설명하고 있음. 최근에는 ‘치유농업’까지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으나, 이는 법적인 사항으로 인정될 수는 없음. 치유농업사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김경미 전 농촌진흥청 연구관 자문 내용)

〈표 2〉 천안시 도시농업관리사 양성 교육 현황(2025. 10월 기준)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교육 인원	125명	25명	-	40명	20명	20명	20명
자격취득 인원	77명	25명	-	17명	10명	12명	13명

자료: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내부자료(2025)

3) 도시농업(농장) 현황

○ 천안시 도시농업(농장) 운영 현황

- 현재 운영 중인 천안시 도시농업(농장)은 총 13개소이고 공영 운영 1곳을 제외하면 모두 민간 운영

〈표 3〉 천안시 도시농업(농장) 현황

번호	구분	텃밭명	텃밭 면적(m ²)	구획수	연간 이용료	농장주소	운영자
합계		13개소	29,426	1,042	8,900평		
소계		12개소	27,357	942	8,275평		
1	민간	어우러진 (미죽텃밭)	1,320	20	10만원/16.5m ²	풍세면 미죽리 308-7	전**
2		어우러진 (신대마을텃밭)	3,305	100	10만원/16.5m ²	신당동 321-3	
3		어우러진 (가송텃밭)	1,322	40	10만원/16.5m ²	풍세면 가송리 74-2	
4		어우러진 (용곡동텃밭)	896	55	10만원/16.5m ²	용곡동 294-17	
5		어우러진 (안서동텃밭)	3,647	130	10만원/16.5m ²	안서동 271-1	
6		초록이미지 채소정원	2,263	33	35만원/12.5m ²	백석공단1로 182	
7		해솔텃밭1	1,719	30	8만원/16.5m ²	업성동 347-1	
8		해솔텃밭2	3,104	95	8만원/16.5m ²	목천읍 삼성리 206-2,3	
9		천안도시농부텃밭	4,136	149	8만원/13.2m ² 16만원/26.4m ²	목천읍 동리 147-3	
10		별꽃원에 치유농장	2,345	90	20만원/16.5m ²	성거읍 저리 137-2	

11		그린농원1	1,650	100	6만/16.5㎡	천안대로 2075	
12		그린농원7	1,650	100	6만/16.5㎡	성거읍 모시리 77-1	
소 계		1개소	2,069	100	625평		
13	공영	시민이 행복한 가족텃밭	2,069	100	4만원/9.9㎡	신계리 161-1	

자료: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내부자료(2025)

○ 천안시농업기술센터, ‘시민이 행복한 가족텃밭’ 운영

- 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센터 인근에 2020년 5월 구좌수 100개(1구좌=9.9㎡, 현재 1구좌당 4만 원) 규모의 시민텃밭을 개설
- 시민텃밭은 분양받는 시민들은 농업기술센터와 농가의 지원을 받아 고추, 토마토, 상추, 가지 등을 식재
- 본 시민텃밭은 천안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아 분양 대기자가 줄을 서고 있는 상황



자료: 충청뉴스. 2020.5.13

[그림 6] 천안시 시민이 행복한 가족텃밭

4) 도시농업 관련 지원사업 현황

- 천안시는 도시농업 단년사업으로 2023년 도시농업 공동체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2024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학교텃밭 활용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 3개, 2025년 마을정원 활용 도시민 공동문화 프로그램 운영 1개 사업을 실시

- 또한 연속사업으로는 도시농부학교, 학교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도시농업 홍보 및 도시농업인 작품전시 등 6개 사업을 실시

〈표 4〉 천안시 도시농업 관련 지원 사업 현황(2025. 10월 기준)

연도	사업명	사업 목적	사업대상	사업비
2023	도시농업 공동체 지원 사업	도시농업 공동체 활동 확산으로 건전한 시민문화 형성 및 도시농업 활성화	10개소	도·시비 30,000천원 (1개소)
	아파트 도시농업 공동문화 프로그램 운영 시범	도시농업 기술보급을 통한 도농 상생 발전 및 공동체 문화공간 확장	3개소	도·시비 4,000천원 (1개소)
	스쿨팜 조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시범	학교 텃밭활동과 협력을 통한 교육으로 학생들의 창의성 및 인성 함양	3개소	도·시비 4,000천원 (1개소)
2024	중학교 자유학기제 학교텃밭 활용 프로그램 시범	중학교 자유학기제 대응 학교 텃밭 활용 교육 콘텐츠 확산 도시농업체험을 통한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 영위 및 삶의 질 향상	1개소	국·시비 8,000천원 (1개소)
	유형별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농업과 식물을 매개로 한 나눔과 소통의 건강한 도시농업공동체 형성 도시농업 전문가를 활용한 텃밭, 정원 등 도시농업 공간조성 및 활용 증대	9개소	도·시비 2,000천원 (1개소)
	마을정원활용 도시민 공동문화 프로그램 운영	도시농업 기술보급을 통한 도농 상생 발전 및 공동체 문화공간 확장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으로 도농 상생 활성화 기여	5개소	도·시비 4,800천원 (1개소)
2025	마을정원 활용 도시민 공동문화 프로그램 운영	도시농업 기술보급을 통한 도농 상생 발전 및 공동체 문화공간 확장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으로 도농 상생 활성화 기여	5개소	도·시비 4,800천원 (1개소)
2023~2025	도시농부학교(9기) 운영	텃밭가꾸기를 통해 자연 친화적 생활 환경 조성, 공익적 가치 실천 주민 공동체 의식 회복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실습텃밭 등	시비 24,950 (2025)
	학교 도시농업 활성화	학교 텃밭 및 원예활동 교육으로 학생들의 창의성 및 인성 함양 원예활동 프로그램으로 자연과 환경, 농업·농촌 인식 제고	관내 초·중등학교	시비 10,000천원
	도시농업 홍보 및 도시농업인 작품 전시	흥타령춤축제 등 다양한 지역행사와 연계한 도시농업 관련 정보제공으로 천안시 도시농업 저변 확대	흥타령춤축제장, 천안박물관한옥 별채, 흥타령춤축제장	시비 18,540천원 (전체)

반려식물 케어데이 (돌봄의 날) 운영	원예식물 교육과 분갈이 실습을 통한 반려식물 문화 확산	2개소 400명(개소 당 200명)	시비 20,640천원(전체, 2025)
저탄소 실천 도시농 업 확산 썸지정원 조 성	도심 속 버려진 공간에 소규모 정원 조성으로 환경개선과 치유공간 마련	5개소	도·시비 6,000천원 (1개소)
도시농업 체험교육장 운영	도시농업·생활원에 체험 및 교육을 통해 도시농업 저변 확대 다양한 생태식물 조성 및 운영으로 시민 여가활동 증진 등	1,004㎡ (3연동 온실)	시비 39,400천원

자료: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내부자료(2025)

2. 천안시 치유농업 현황

1) 추진 근거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 시행('21.3.25.)
- 천안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1.9.13.)

2) 치유농업(사)⁴⁾ 양성 프로그램 현황

① 양성기관

- 내용: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2021년~),
- 기관: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평생교육원

② 천안시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 운영 프로그램

- 사업명
 -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자 역량 강화 (신규사업)

4) 치유농업사의 업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치유농업사의 업무)'에 업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치유농업서비스의 기획 및 경영,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 및 관리, 치유농업 분야 인력의 교육 및 관리, 치유농업자원 및 치유농업시설의 운영과 관리'로 제시하되, 1급과 2급의 자격에 따른 업무 차이를 명시하고 있음. 또한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장 운영자가 될 수 있으나, 치유농장 운영자가 치유농업사가 될 수는 없음. 치유농장 운영자(주로 농업경영체)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치유농장 인증제 대상이 될 수 있음.(김경미 전 농촌진흥청 연구관 자문 내용)

○ 사업목적

-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완성도 제고 및 서비스 운영 능력 향상

○ 추진방향

- 대상자별 치유농업 프로그램 적용 및 운영 기법 교육
- 치유농업 프로그램 우수사례 벤치마킹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 1. ~ 12.
- 사업량: 20명 내외
- 사업비: 5,000천원(시비 5,000)
- 사업대상: 치유농장 운영자 및 운영 희망자

○ 사업내용

-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 운영기법 등 교육
- 타지역 치유농장 견학을 통한 운영사례 벤치마킹

③ 치유농업사 인원 현황

- 치유농업사: 8명('22~'24)
-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 이수자: 16명('22~'24)

3) 치유농업(농장) 현황

○ 천안시 치유농업(농장) 운영 현황

- 천안시 치유농장(치유농업 관련 교육 참여자의 농장 및 다회차의 치유농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농장)은 현재 13곳이 운영 중임
- 이 가운데 치유농업 관련 정부 지원사업을 받은 농장은 7곳으로 약 절반 차지하며 운영 프로그램은 천연염색, 원예치유, 텃밭정원, 동물 및 유가공, 쌀과 콩, 열대작물 체험 등 다양

〈표 5〉 천안시 치유농업(농장) 현황

연번	농장명	대표	사업장 주소	치유소재	비고(지원현황)
1	공방고운	김○○	수신면 해정2길	천연염색, 공예	-
2	미추	박○○	목천읍 도장로	도예, 다육정원	-
3	별꽃원에 치유농장	이○○	성거읍 저리길	텃밭정원, 원예치유	'25 농업·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 지원시범
4	봉황52농장	조○○	병천면 봉향로	오이 활용 치유활동 (농작업, 음식활동)	'22 수요자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시범
5	운봉숲농원	신○○	목천읍 서흥1길	산채나물, 숲치유	-
6	이안아트팜	안○○	유량로 280	호두, 창작예술 허브류	'21치유농업 육성시범
7	장승배기농장	류○○	성남면 성남신덕1길	농촌경관, 밤, 고구마	'20치유형 농촌 체험농장육성시범
8	행복공간&아우내 오이 체험농장	이○○	병천면 탑원1길	오이 활용 치유활동 (농작업, 음식활동)	-
9	화성선인장	이○○	입장면 연곡길	원예치유(다육아트)	'22 농촌자원활용 치유농업 육성시범
10	힐링팜 비렘대로	오○○	동남구 통세골1길	텃밭연계 치유활동	-
11	Sun-Love치즈	이○○	성남면 대흥2길	동물(젖소) 유가공(음식)	-
12	수신치유농장	박○○	수신면 장산2길	쌀, 콩	'24쌀콩달콤 스트레스저감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보급시범
13	치유농장 순수	김○○	목천읍 교촌1길	커피, 바나나, 파파야 등 아열대작물	'22 농촌자원활용 치유농업 육성시범

주: 치유농장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2023년) 대상농장, 시범사업농장 중심으로 작성, 8회기 이상 다회차 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치유농업 사업 농장 등
 자료: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내부자료(2025)

4) 치유농업 관련 지원사업 현황

- 천안시농업기술센터가 매년 3~5개의 사업을 직접 수행 혹은 치유농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실시
 - 최근 천안시 치유농업 관련 지원사업을 보면, 2023년에는 치유농업 “수요공급 매칭”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 등 5개 사업, 2024년에는 쌀콩달콤 스트레스 저감용 치유농업프로그램 보급시범 등

5개 사업, 2025년에는 농업·농촌 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 지원 시범사업, 치유농업 프로그램 시범운영 등 3개 사업을 실시

- 천안시 치유농업 관련 지원사업을 보면, 대부분 천안시농업기술센터가 직접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치유농장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

○ 일부 농장에 대해서는 시설기반 조성 지원

- 치유농장에서 치유농업 관련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꽃원에 치유농장 등에 대해서는 시설기반 조성을 지원

〈표 6〉 천안시 치유농업 관련 지원 사업 현황(2025. 10월 기준)

연도	사업명	사업 내용	사업대상	사업비
2023	치유농업 “수요공급 매칭”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사업 연계 치유농업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도 치유농업 육성사업 설명 ▶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보건사업 확대 운영 방안모색 ○ 보건사업 담당자 치유농장 「팸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치유농장 방문 및 농장별 대표 프로그램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 연계(3): 동남구보건소(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건강증진) - 사회서비스 연계(3): 아우내 은빛복지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직장맘지원센터 - 위프로젝트 연계(2): 환서중학교, 복지여자고등학교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농업 프로그램 코칭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농업 프로그램 이해 및 작성 ▶ 프로그램 시연에 따른 피드백 ○ 치유농장 운영자 현장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진흥청, 치유농업 프로그램 이전·실증사업(치유형 농촌관광) 1박2일 프로그램 참여 ○ 치유농업 중재기법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주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 ▶ 치료적 의사소통 방법 및 대상자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습 	치유농업시설 운영자(8회 38명)	
	치유농업사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프로세스 구축	일회성 체험이 아닌 사전진단을 통해, 유형별(예방형, 치료형, 재활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사후 효과 검증 등 프로세스 운영		
	농업·보건·사회복지 협업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구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관리사업 ▶ 정신건강복지사업 	64회 174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생활증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Wee) 프로젝트 ▶ 위클래스 ○ 사회서비스 ▶ 노인맞춤돌봄 		
	일상회복을 위한 치유관광형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 스트레스 ▶ 보건업무 담당자 ○ 육아 스트레스 ▶ 장애인가족 ▶ 워킹맘가족 	4회, 85명	
2024	쌀콩달콩 스트레스 저감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보급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농업체험장 리모델링 및 장비 구입 (남여 화장실, 싱크대·작업대, 냉·난방시설 등) ○ 치유효과 측정장비 구입 ○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 치유프로그램 시범운영 	수신치유농장 (박○○)	국·시비 80천원
	기후변화대응 작물 활용 치유농업 창업 지원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농장 조성 (치유농업 체험장 신축 및 장비구입, 농장 환경개선 등) ○ 치유효과 측정장비 구입 ○ 운영자 역량강화 컨설팅 ○ 치유프로그램 시범운영 	치유농장순수 (김○○)	시비·자부담 300천원
	농업·보건·사회복지 협업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관리사업 ▶ 경증치매 치매가족 ○ 정신건강 증진사업 ▶ 중증정신질환건강 ▶ 노인정신건강 ▶ 아동정신건강 정신장애재활사업 ▶ 자살고위험군심리지원 ▶ 유족심리지원 ○ 위(Wee)클래스프로젝트 ▶ 위클래스 ○ 청년자살예방사업 ▶ 청년자살예방 MIND 대학교 ○ 사회복지시설연계 ▶ 아우내은빛복지관 	42회, 173명	
	쌀콩달콩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술보급 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쌀(벼)·콩 활용 중심 치유농장 조성 ○ 치유자원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비, 교구 	박의경 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프로그램 운영 효과 측정장비 (유비오맥파) 구입 ○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자 역량 교육 및 컨설팅 ○ 쌀(벼)·콩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p>※ 치유프로그램 시범운영: 12명, 5회기(9.30.~10.28., 매주 월)</p>		
	기후변화대응 작물 치유농업 창업지원 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대응 작물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체험농장 조성 ○기후변화대응 작물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체험농장 조성 	김○○ 농가	300,000 천원 (시비 150,000 자부담 150,000)
2025	농업·농촌 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 지원 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외 교육·체험장 조성 및 시설 장비조성 ○치유프로그램 및 운영 매뉴얼 개발 ○치유효과 측정 장비 지원, 농장 안전시설 설치 등 	별꽃원에 치유농장 (이○○)	도·시비·자부담 50천원
	치유농업 프로그램 시범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시보건소 ▶정신건강증진사업(자살고위험군심리 지원, 자살유가족심리지원) ○ 주택관리사협회 ▶직무스트레스관리에방(천안시주택관리사) 	3개사업, 14회, 45명	
	농업·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 지원 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장 기반조성 ▶실내실외 교육 체험장 조성 및 시설 장비지원 ▶농장에 맞는 치유 프로그램 및 운영 매뉴얼 개발 등 	1개소	50,000천원 (도비 10,500, 시비 24,500 자부담 15,000)

자료: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내부자료(2025)

3. 천안시 도시·치유농업 사업 평가

1) 잘된 점

① 도시농업

- 천안시농업기술센터나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교육, 시민텃밭 조성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교육, 생활원예·반려식물 교육 등 주도
- 2020년에는 공공형 시민텃밭인 ‘시민이 행복한 가족텃밭’을 조성해 현재 약 100가족에 분양 및 운영 중임.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음

② 치유농업

- 천안시농업기술센터가 주도해 치유농업운영자 교육, 보건소 등과 연계한 노인 치매 예방, 청소년 자살 예방, 정신건강 증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및 지원
- 특히 농업과 복지를 연계해 스트레스직업군(주택관리사 등)에 대해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 농장에 맞는 프로그램 메뉴얼을 개발해 보급

2) 어려움

- 사업 예산 부족
 - 인구 성장 도시인 천안시는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이에 따른 예산의 부족으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특히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은 민간 영역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공공영역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나 사업비 부족으로 실행이 어려운 실정
- 전문인력 부족
 -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현재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내에는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 사업 확장이 어려움
 - 특히 치유농업은 최근 원예지식뿐만 아니라 의학지식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로 발전하고 있는데 현재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내에는 이런 전문인력이 부족

○ 운영시스템 및 인프라 부족

- 도시농업관리사, 치유농업사 등의 인력이 양성되지만 지역에서 전문영역으로 자리잡기는 쉽지 않은 실정
- 특히 치유농업사는 농업뿐만 아니라 의료·복지 분야와의 협력 등이 필요하나 개인 차원의 접근은 어려운 부분이 존재
- 치유농업 관련 전문시설인 ‘치유농업센터’는 충남도농업기술원과 같이 광역단위에 주로 설치되기 때문에 천안시 등 일반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치유농업의 성과 측정 등을 하는데 한계가 존재

04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 국내 사례

1) 생거진천케어팜

① 위치 및 규모

- 위치: 충북 진천군 진천읍(옛 농업개발센터 유휴 부지에 조성)
- 면적: 약 7,900m²
- 시설: 시설하우스 6동(각 200~560m² 규모), 텃밭 약 4,958m², 동물 사육 시설(닭, 염소, 토끼 계획), 100m²규모의 스마트팜 2동

② 조성 목적

- 진천군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등)에게 치유 및 돌봄 기능 제공
- 농업과 복지를 결합해 치유, 돌봄, 고용, 재활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

③ 운영 주체 및 제도적 기반

- 운영: 충청사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
 - 농업전문가와 사회복지사가 공동으로 운영
- 제도적 기반: '케어팜 설치 및 운영 조례'(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제정)
 - 조례에서는 케어팜 설치·운영, 기능, 관리, 위탁 경비 지원 등을 규정
- 진천군이 조례를 통해 케어팜 운영을 위한 물적·인적 토대를 지원: 농지,

시설, 인건비(3인)



[그림 7] 생거진천케어팜 주요 시설

④ 대상 및 주요 프로그램

- 대상: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 주요 프로그램
 - 농업활동: 텃밭가꾸기, 농작물 돌보기, 동물 돌보기(닭, 염소, 토끼 등)
 - 치유프로그램: 노인·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및 일자리 사업, 정신건강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정서지원 프로그램
 - 노인 고립 해소 프로그램: 예컨대, ‘행복 울타리’ 프로그램을 통해 독거노인 대상 텃밭놀이, 원예치료, 숲 산책 등을 진행.

- 지역사회 참여: 최근 지역사회 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김장축제를 개최함. 농장에서 재배한 배추를 사용해 김장을 해서 지역 내 다문화, 소외계층,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나누는 활동 전개(뉴스1 2025.11.19.)



자료: 중부매일 2023.4.5
생거진천케어팜에서 채소를 가꾸는 어르신들



자료: 뉴스1 2025.11.19
생거진천케어팜 지역사회 나눔행사(김장축제)

[그림 8] 생거진천케어팜 프로그램 운영 활동

⑤ 의의 및 시사점

○ 공공형 케어팜의 모델 제시

- 생거진천케어팜은 일반 치유농장, 사회적농장(돌봄농장)과는 달리 진천군이 조례에 근거해 물적·인적 기반(토지, 시설, 인건비)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공공형 케어팜이라고 할 수 있음. 이 때문에 케어팜을 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 제시
- 농업분야에 복지전문가의 참여는 부족한 상태이지만 생거진천케어팜은 사회복지사가 케어팜에 참여함으로써 농업과 복지의 연계 강화 및 전문화
- 진천군의 투자 참여로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주체 간 협력 모델 가능

○ 사회·경제적 가치 효과 증대

- 생거진천케어팜의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은 1:3.2로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음을 증명(2025년 치유농업세미나에서 발표)

- 이러한 효과 증명은 지자체 공공형 케어팜 운영의 타당한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

2) 인주농협케어팜⁵⁾

① 위치 및 규모

-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영인산로 260-14(인주농협요양원 내)
- 시설: 약 200m²(60평) 규모의 유리온실, 텃밭, 산책로 등으로 이루어진 복합 치유농업 공간
- 특성: 논·밭·마을이 혼재한 전형적인 농촌 환경으로, 요양원 + 케어팜 + 산책로가 한 공간 안에 조성된 구조

② 조성 목적

- 요양원 입소 어르신의 심신 치유·건강증진, 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가족·지역사회의 힐링 공간 제공
 - 세부 목적: 1)원예·농업활동을 통한 신체 기능 유지·회복, 2)정서적 안정·사회적 교류 촉진, 3) 요양서비스의 다원화(농업 자원 연계 돌봄)

③ 운영 주체 및 제도적 기반

- 운영: 인주농협(조합)이 설립·운영하는 인주농협요양원이 케어팜을 도입하여 직접 운영
 - 요양원은 2019년에 설립되어 현재 입소·요양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케어팜은 요양원 시설 내에서 추가로 조성된 공간
- 제도적 기반: 충남도·아산시가 추진한 <사회서비스 연계 치유농업 육성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으며, 총 3억 5천만 원(도비·시비·자부담) 예산이 투입된 공공-민간 협력 모델

5) 농민신문(2024.6.4/5) 보도자료, 다기능농업연구소 남동규 공동대표의 자문 등을 참고해 정리

④ 대상 및 주요 프로그램

- 대상: 주 대상은 인주농협요양원 입소 어르신(노인)이며, 면회·가족 방문자, 지역주민 대상 체험·힐링 프로그램도 가능하도록 설계
- 주요 프로그램
 - 원예·작물 가꾸기: 수경재배·텃밭 활동을 통한 손·눈 협응 훈련, 가벼운 신체활동 유도
 - 동반 활동(면회형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 작물을 돌보거나 온실에서 대화하는 시간 제공(면회 환경 개선)
 - 정서지원·치유활동: 식물 돌보기, 관상식물 관리 등을 통한 정서 안정(치유농업 형태)



자료: 힐링플랜트사회적협동조합 블로그(<https://blog.naver.com/hfnetwork/223545167396>)

[그림 9] 인주농협 요양원케어팜 프로그램 운영 활동

⑤ 의의 및 시사점

- 지역사회 협력형 케어팜 모델 제시
 - “농협 + 요양원 + 케어팜”이 한 시스템으로 결합된 국내 첫 사례로, 농업협동조합이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치유농업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지방자치단체(충남도·아산시)와 농협, 요양원이 함께 예산(도·시비)+공간(요양원 부지) + 운영(농협)을 묶은 복합 협력모델로서, 농촌 요양시설을 치유농업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실질 사례
 - 천안시 입장에서는 농촌지역 요양병원+요양원+노인복지시설과 치유농업을 결합하는 모델을 설계할 때 인주농협 케어팜이 매우 직접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음

○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 모델 제시

- 기존 요양 시설에 농업활동을 통합함으로써 신체·정서·사회적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돌봄 모델을 실증하려는 시도로 평가

○ 지역사회 연계·공간 재활용:

- 요양원 부지 내 유휴 공간을 치유·체험 공간으로 전환하여 가족·지역민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는 점에서 지역복지 인프라 확충 효과

2. 국외 사례

1) 독일의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⁶⁾

○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 독일의 'Bundeskleingartengesetz(연방클라인가르텐법)'이 클라인가르텐의 규모, 용도, 운영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생활주거 목적이 아닌 여가형·가드닝형 텃밭'으로서의 운영을 명확히 하고, 상업적 개발이나 주거용으로의 전환을 제한하는 규정 적용

○ 도시농업 및 도시녹화 전략과의 연계

- 도시 내 녹지 및 여가공간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클라인가르텐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도시민의 자연 접촉, 여가·휴양 공간으로 역할 증대
- 또한 'Essbare Stadt(먹을 수 있는 도시)' 같은 개념과도 맞물려, 도시농업·도시 텃밭·커뮤니티가드닝 등과 함께 정책적으로 조명

○ 사회적·치유적 기능 강화

- 최근에는 클라인가르텐이 단순한 취미·가드닝 공간을 넘어 신체적, 심리·정서적 건강증진 매체로 주목
- 예를 들어, 도시민이 자연과 접촉하고 '손·토양·식물'을 통해 심리적으로 회복하

6) 건강농업연구소 강동규 소장의 자문과 학스켈더 알레, 갈루스 가든 홈페이지 등의 내용을 참고해 정리

는 경험이 증대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 발표⁷⁾

- 그리고 이민자, 고령자,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커뮤니티 텃밭 또는 상호작용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음. Stiftung Interkultur(다문화재단)은 ‘인터컬처럴 가든(intercultural gardens)’을 통해 이민자 통합 및 공동체형 회복농업 모델을 지원

○ 지속가능성·환경적 기능

- 클라인가르텐 제도는 도시 생태계 내에서 녹지비율 확대,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완화 등 환경적 기능과 결합
- 또한 도시농업으로서 작물 재배, 지역 식량망 연계, 식품 소비자 참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모델을 추구하는 흐름도 존재
- 도시 내에서 클라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대기자 명단이 길어지는 도시들도 많이 출현

□ 사례1: Kleingartenverein Hagsfelder Allee e.V. (학스펠더알레 클라인가르텐)

○ 위치

- 주소: Hagsfelder Alle24, 76131 Karlsruhe, Baden-Württemberg, 독일
- 카를스루에에서 가장 큰 클라인가르텐(소정원) 단지 중 하나로, 공원 같은 녹지 역할을 함
- 홈페이지: <https://www.klqv-hagsfelderallee.de/>

○ 운영 현황 및 특성

- 설립연도: 1922년
- 회원: 467
- 정원(구획): 463개
- 전체면적: 14.5ha
- 카를루에 시에서 가장 큰 클라인가르텐 협회로 바로 옆에 숲과 공원이 인접한 녹지축 한가운데 위치하여, 도심과 대학(KIT 캠퍼스) 인근에 있으면서도, 항공사진에서 보면 거의 하나의 거대한 숲·정원 블록처럼 도시 열섬을 식혀주는 구조

7) <https://www.bbsr.bund.de/BBSR/DE/forschung/programme/refo/staedtebau/2017/kleingarten/03-ergebnisse.html?nn=1659390>

- 1개의 ‘학교정원(Schulgarten)’이 있으며, 지역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채소 재배, 꽃 가꾸기, 곤충호텔 설치 등 도시농업·치유농업과 환경농업 교육 활동
 - 1개의 장애인·고령자 친화 정원(Behindertengarten)을 1998년에 조성하였고, 이들에 맞게 높은 화단을 만들고,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게 동선과 폭을 확대
 - 정원 규칙 (Gartenordnung): 1)최소한 정원의 1/3은 채소나 과일 같은 “생산용 정원(gärtnerisch)”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 2)“휴식용 + 생산용”의 균형이 요구됨. 이는 도시 녹지의 공공적 가치(환경, 여가 등)를 반영
 - 회원들 간의 공동체 의식이 강함: 정원 유지, 환경 보호, 사회적 참여를 중요하게 여김
 - 다양한 연령층 참여: 학생, 가족, 은퇴자 등 모두 참여 가능하고, 특히 학교 정원을 통한 환경 교육 강조
 - 가입 및 정원 분양 (가든 파르트): 정원 분양을 원하면 자기소개서 + 지원서를 제출해야 가능
- * 분양 조건 중 하나는 정원의 최소 1/3은 채소 등 생산용으로만 사용



자료: <https://www.klgv-hagsfelderallee.de/restaurant>(우, 클라인가르텐 내 레스토랑)
https://fly-foto.de/luftbild/kleingartenverein-hagsfelder-allee-ev-im-ortsteil-oststadt-in-karlsruhe-2020-04-23-img-120485-jpg_2/?utm_source=chatgpt.com(좌)

[그림 10] 학스펠더알레 클라인가르텐

○ 평가 및 시사점

(1) 다층적 치유 기능(개인, 사회, 생태)

- 개인 치유(도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녹지제공으로 스트레스 감소, 불안 완화, 신체활동 증진)
- 사회적 치유(460여 명 회원, 460여 개 정원, 클럽하우스와 식당, 공동행사 등은 도시 속 마을공동체 역할을 수행하고, 장애인 정원, 학교 정원, 기부활동 등은

소속감, 연대감, 이웃 간 신뢰 증진

- 생태·환경 치유(조류보호구역 인접, 자연에 가까운 정원 등은 기후 완화, 생물다양성 증진 등으로 도시 생태 회복에 기여)

(2) 포용성과 접근성(약자를 배려하는 정원)

- 장애인용 정원, 고령자 친화적 높임화단, 유니버설 디자인 등

(3) 교육·세대 통합(다음 세대를 키우는 정원)

- 학교정원은 장기적 파트너십 기반의 환경·식생활 교육의 모델
- 협력, 책임감, 돌봄 능력을 배우고, 세대 간 만남 이어줌

□ 사례2: Gallus Garden (갈루스 정원)

○ 위치(지리적 특성)

- 프랑크푸르트 시내 Gallus 지구, Schneidhainer Str. 일대, 독일

○ 운영 현황 및 특성

- 2016년 봄부터 프랑크푸르트 시의 지원과 Gallus 사회복지, 교육법인이 주체가 되어 시작된 공동 프로젝트로 면적 약 1,450m², 100개 이상의 높임화단으로 조성함
- 공식 슬로건: 모두를 위한 정원(Ein Garten für alle)
- 높임화단 중심 구조: 100개 이상의 높임화단에 채소, 허브류, 베리류, 과수, 꽃을 재배하고, 일부는 개인과 가족단위로 관리하고, 일부는 모두가 함께 돌보고 모두가 수확하는 공동구역으로 운영
- 일부는 Piratenbeete(해적 텃밭)라 불리는 열린 화단을 두어 지나가는 주민이 자유롭게 가꾸고 수확할 수 있도록 조성
- 다문화·다세대 커뮤니티 공간: Gallus 지구는 이주민 비율이 높은 다문화 주거지역으로 정원은 '지역에 오래 산 주민'과 '새로 이주해 온 주민'이 만나는 세대 문화 교류의 장으로 기획
- 지속가능성 기후 적응 실천: 자체 퇴비를 만들어 사용하고, 빗물 재활용을 통해 물절약 및 기후위기 적응 실천

- 2019년에 두 번째 Gallus 정원을 Frankenallee 97-99에 조성



자료: <https://gallusgarten.de/beitraege/1>

[그림 11] 갈루스 정원

○ 평가 및 시사점⁸⁾

- 도시형 치유농업과 커뮤니티 센터의 결합: 텃밭 + 커뮤니티 센터 + 교육장 + 기후학교가 한 공간에 겹쳐 있는 구조로 참여자들은 작물을 재배하며, 이웃과 함께 모이고, 서로의 언어, 문화 음식을 나누며, 지역행사와 계절 축제를 치르는 경험을 공유
- 다문화·다세대 통합의 모범 사례: 이주민이 많은 Gallus 동네에서, 정원은 ‘언어가 달라도 함께 손을 쓰면 통한다’는 공간으로 작동하고, 아이, 청년, 부모, 노인, 장애인 등이 섞여 공동작업을 하는 구조는 세대통합형 치유농업의 실제 모델이 됨
- 프로젝트 종료 이후에도 지속되는 구조: 사회복지법인 + 시 + 주민이 함께 제도, 재정, 운영 구조를 안정화하여 정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

2) 네덜란드의 케어팜(care farm)⁹⁾

○ 다양한 서비스 형태로 발전

- 네덜란드의 케어팜(care farm)은 돌봄(케어)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전문적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운영 중
- 대부분의 케어팜이 주로 낮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최근 들어 다양한

8) <https://una.city/nbs/frankfurt-am-main-main/gallus-garden-community-garden>

9) 바흐닝엔케어팜연구소 조예원 소장의 자문과 사례 농장 사이트를 참고해 정리

서비스 형태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

- 거주형, 숙박형, 치료서비스 제공 등으로 다양화(Meulen et al., 2025)

○ 정부 차원의 장기요양 서비스와의 연계 추세

- 케어팜의 소득은 주로 지방정부의 보건복지관련 예산 및 중앙정부의 장기요양 예산으로, 농장이 제공하는 해당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서 지급
- 케어팜에서는, 대체로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지불되는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케어 서비스의 비율이 높았던 이전에 비해, 최근 들어 점점 장기요양 비용으로 지불되는 보다 중증 환자를 위한 케어 서비스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Meulen et al., 2025)

○ 2020년 이후 점차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추세

- 어린이와 청소년, 직업 재활, 중독 치료, 치매, 지적장애 등 각 분야에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는 추세(Meulen et al., 2025)
- 서비스 전문화는 주로 해당 비용을 지불하는 헬스케어 기관들의 요구로 진행

○ 네덜란드의 도시농업 이니셔티브는 그 수와 다양성이 빠르게 증가

- 지방정부가 보건복지 관련 예산으로 주민 케어 비용을 본격적으로 부담하게 된 2015년 이후, 농촌의 케어팜처럼 도시의 지방정부도 도시농업을 활용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사회적 농업과 도시농업의 결합이 발생

□ 사례1: De Moestuin 농장(도시형 사회적 농업)

○ 위치

- De Moestuin 농장은 네덜란드에서 네 번째로 큰 대도시 위트레흐트 (Utrecht) 시의 도시-농촌 경계 (peri-urban)에 위치하여 도시민들의 방문이 용이
- 규모: 약 2.5헥타르(약 6.18에이커)의 유기농 농장

○ 설립 목적

- 노동 시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예: 정신 질환, 중독 회복 등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 재통합과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¹⁰⁾

○ 운영 현황 및 특성¹¹⁾¹²⁾

- 운영 방식: 유기농 채소 재배, 카페, 상점, 목공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이 결합된 복합 공간
- 2.5 헥타르 면적의 농장에서 유기농으로 50종 이상의 채소 및 허브, 과일, 꽃 등을 재배
- 사회적 기업으로서, 정신 질환이 있거나 중독에서 재활중인 사람들을 약 70명 고용하여 함께 농장에서 일하고 있음. 일반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통합을 목표로 진행
- 일반 도시민들을 농장의 회원으로 모집하여 200여명의 회원들이 매주 직접 농장을 방문하여 농작물을 수확해 가며 도시민과 농장의 직원들 간 자연스러운 접촉 가능
- 농장에는 카페 및 유기농 식료품점, 이벤트나 특별한 행사를 위한 온실 등을 갖추고 있어 각종 이벤트에 대여 및 일반인 방문도 활발

○ 평가 및 시사점

- De Moestuïn은 단순한 농장을 넘어서 도시재생, 사회적 통합,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 구축의 모범 사례로 볼 수 있음. 특히 현대 도시 생활에서 사람들의 소속감, 연대감, 자연과의 연결이 약해지는 현실 속에서, 이런 형태의 프로젝트는 의미가 상당
- 더 맛있고 지속가능한 식료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춰, 거주지와 인접한 농장에서 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민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도록 운영
- 케어 서비스 및 일자리 등이 필요한 취약 계층을 위한 노동 및 케어의 공간으로서 농업의 치유적 기능을 활용

10) https://sustainableurbandelta.com/this-urban-farm-in-the-netherlands-grows-healthy-food-and-communities/?utm_source=chatgpt.com

11) <https://sustainableurbandelta.com/this-urban-farm-in-the-netherlands-grows-healthy-food-and-communities/>

12) <https://youtu.be/ls2DMku-jMw>



자료: https://sustainablebandelta.com/this-urban-farm-in-the-netherlands-grows-healthy-food-and-communities/?utm_source=chatgpt.com

[그림 12] De Moestuin 농장

□ 사례2: Hoeve Klein Mariendaal 농장(노인 및 성인 장애인을 위한 도시형 케어팜)

○ 위치

- 네덜란드, Arnhem(주소: Diependalseweg 4, 6813 GE Arnhem)
- 네덜란드의 중소도시인 아른헴(Arnhem)시에 위치한 농장으로 주변 환경은 주로 숲으로 둘러싸여 도시 내에서도 자연환경의 이점을 온전히 누리는 곳에 위치

○ 설립 목적

- 장애가 있거나 돌봄이 필요한 다양한 그룹(정신적 어려움, 자폐, 치매, 지적장애 등)의 사람들이 이 농장에서 활동과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

○ 운영 현황 및 특성

- 작물을 키우는 텃밭, 목공실, 실내 활동공간, 일반인 대상으로도 운영하는 카페 등이 있으며. 염소, 닭, 토끼와 같은 동물들도 키우고 있어, 전형적인 네덜란드의 케어팜의 모습
- 이용객들은 아른헴 시에 거주하는 노인 및 장애인들로, 집 또는 시설에서 방문
-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주말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서비스도 운영

○ 평가 및 시사점

- Hoeve Klein Mariendaal은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의 모델로 매우 강력한 성공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이는 단순한 농장이 아니라 돌봄, 재활, 커뮤니티 구축, 교육, 지속 가능한 농업이 결합된 복합 공간이기 때문¹³⁾
- 도시에서 일반 농촌형 케어팜의 특성을 그대로 구현하여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수준 높은 케어의 제공이 가능한 모델을 제시
- 상대적으로 다양한 타입이 모두 있는 도시민들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로서 유용



자료: <https://www.hoevekleinmariendaal.nl/leren-meedoen/>

[그림 13] Hoeve Klein Mariendaal 농장

13) <https://chatgpt.com/c/6924a871-aa58-8323-a790-aaacbc29b651>

1. 기본 방향

○ 사회적 수요에 따른 도시·치유농업 사업 확대

- 도시의 확장, 개인의 고립, 현대인의 정신적·육체적 질병 증가, 고령화와 취약계층의 증가, 이주민의 증가에 따라 도시농업, 치유농업에 대한 수요 증가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 특히 천안시는 수도권과의 인접으로 인해 외부로부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로 인해 도시화와 산업화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의 수요에 적극 부응

➔ 세부 추진 방향

- 공공형 시민농원을 확대하고 민간 영역의 시민농장에 대한 지원 확대
- 다양한 계층,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치유농업 기반 조성

○ 도시·치유농업의 전문화를 통한 접근권 확대

- 최근 도시·치유농업의 경계는 불분명해지고 있으며 기능과 역할이 점점 세분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고 서비스 제공 주체도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추진
- 노인뿐 아니라, 재활이 필요한 성인, 장애인,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어린이 및 청소년 등 다양한 돌봄 관련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욕구를 충족 시켜주고 세부적인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돌봄 농장 조성

➔ 세부 추진 방향

- 노숙인이나 은둔형 외톨이의 통합을 위한 사업,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를 위한 낮시간 돌봄 서비스가 결합된 농장(장기요양제도 활용), 노숙인 등 통합이 필요한 성인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농장, 학교 밖 청소년에게 갈 곳을 제공하고 교육 활동이 결합된 농장 등 특별한 기능을 제공하는 농장 조성. 이들 농장에서 기존의 제도에서 소외된 도시민들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표 7> 참고)
- 특히, 최근에는 복지시설 내 치유농장(실내 스마트팜) 도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인주농협 요양원의 케어팜처럼 요양시설 내 스마트팜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천안시가 이를 벤치마킹
- 천안시는 농업주체(농장, 농협, 마을기업)와 복지기관(요양원, 노인복지관 등)의 연계를 강화하면 새로운 농업-복지 융합 사업 설계 가능

<표 7> 대상별 특화 치유농업모델 사례

대상군	주요 목적 및 운영 모델	주요 사례 지역
고령자/치매 환자	인지 기능 유지, 정서적 안정, 사회적 고립 해소 (농협-복지 연계 케어팜)	아산 인주농협, 부천 소사치매안심센터
발달장애인	직업 재활, 자립 능력 향상, 사회성 훈련 (사회적 농업 연계)	김제 꽃다비팜, 진천 케어팜
스트레스/트라우마	정신 건강 회복, 심리적 안정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홍천 소방관 치유 프로그램, 충주 슬로우파머
청소년	정서 순화, 학습 능력 향상, 진로 체험	각 지역 교육 농장 및 시범 치유농장

자료: 남동규 제공(2025)

○ 시민의 기본권으로써의 도시·치유농업 활성화

- 현재까지 도시·치유농업은 주말농장에 참여하는 일부 시민,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등 일부 계층에 국한되어 운영해 온 경향이 존재
-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의 경우 모든 시민은 자연과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도시·치유농업을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세부 추진 방향

- 시민농원(가족텃밭)을 독일의 클라인가르텐과 같이 공공재로 간주해 정부차원의 공급 확대. 기본적으로 시민의 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형태의 시민농원 제공
- 주로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치유농업 바우처제도를 일반 시민들, 특히 정신건강 취약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일명 ‘천안 치유농업 이용카드(care farm pass card) 도입)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농장에 대해서는 바우처 서비스 등록이 연계되는 시스템 구축
- 보다 많은 시민들이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농원(가족텃밭) 이용료의 일부를 행정에서 지원

○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도시민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도시농업 서비스 창출

- 소수의 관심있는 도시민들이 참여하여 모든 재배를 책임지는 텃밭과 같은 주말 농장 스타일만이 아니라, 네덜란드의 De Moestuin 농장과 같이 기업화된 농장에서 유기농작물을 수확만 하거나 농장의 환경을 즐길 수도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이 천안시와 같은 도시에서의 농업 활동으로 적절
- 이를 다양한 서비스로 개발하여, 이벤트를 위한 농장의 공간 대여, 학교와 결합한 교육 활동 제공,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제공 등 생산만이 아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 경영으로 개발 가능

➡ 세부 추진 방향

- 천안시 소재 유기농장, 친환경농장 등 도시농업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 천안 소재 학교가 학교 내 공동체 텃밭을 조성하고 유기농민, 도시농업관리사와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인적·제도적 기반 조성 방향

○ 전문인력 육성과 네트워크 강화

- 도시·치유농업은 도시의 공동체성 증대, 경관 보전, 사회통합, 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안전한 먹거리 확보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
- 도시·치유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인력의 전문성임. 이 때문에 도시·치유농업을 개별 농장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행정이 적극 개입해 이러한 활동이 지역 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세부 추진 방향

- 지역 내 도시농업사, 치유농업사가 전문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제공: 인턴제(일정 기간 치유농장 등 근무 시 인건비 지원), 멘토-멘티제, 학교, 기업체 등과의 연계 지원
- 단순 농업기술이 아닌 심리·재활·교육적 이해를 갖춘 인력 양성이 필수이며 현장 중심 ‘케어팜 슈퍼비전 제도’ 도입
- 치유농업사·원예치료사·사회복지사·의료진을 묶는 지역 네트워크(정기 워크숍·임상 사례 공유)를 구성해 프로그램 품질관리와 표준 운영매뉴얼을 개발
- 농장-복지기관-지자체 3자 협력모델 구축: 1) 단기적 협약 수준을 넘어 지자체 사회서비스 네트워크에 정식 편입. 2) ‘천안형 치유농업 연계지원단’ 신설해 서비스 품질관리 및 데이터 수집

○ 천안 도시·치유농업 수요-공급 매칭 DB 및 플랫폼 구축

- 최근 천안시에도 시민농장과 치유농장(돌봄농장)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농장 운영이 어려움
- 따라서 더 많은 천안시민이 도시농업과 치유농업(돌봄농업)에 참여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천안 소재 시민농장과 치유농장(돌봄농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세부 추진 방향

- 치유농업 희망 기관(병원·복지관)과 기존 텃밭·농장(공공·민간)을 매칭할 수 있는 DB 수집 및 통합 플랫폼 구축

○ 천안형(공공형) 치유농업(케어팜) 거점 마련

-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은 어느 정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재정 지출 및 행정 지원을 통해 공공형 케어팜 조성 필요
- 특히, 복지 사각지대인 읍면 지역, 동 지역이지만 복지 취약지역에 공공형 케어팜 설치를 통해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 지원

➡ 세부 추진 방향

- 기존 공공텃밭, 시민농장, 치유정원 일부를 통합해 ‘천안 치유농업 허브’(작은 온실+실습장+상담공간)를 설치
- 공공형 케어팜의 역할: 치유·교육·실습·연구·봉사활동의 중간 허브(광역센터와의 협력 거점)
- 진천의 생거진천케어팜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해 천안시에 도입 방안 모색

○ 재정 및 인력 확보

-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은 정책적 수요에 비해 행정 차원의 재정과 인력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점차 보완
- 특히 천안시가 공공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족텃밭은 수요에 비해 관리 인력의 부족으로 이를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력 보완이 우선 필요
- 또한 향후 공공형 가족텃밭 확대, 가족텃밭 시설 설치, 도심 내 텃밭조성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 세부 추진 방향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업 업무를 천안시청 농업환경국으로 이관해 운영: 현재 천안시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내 도시농업팀이 존재
- 도시농업을 위해서는 농지 확보, 시설 설치, 농장 관리 및 표준화 모델 구축, 도시텃밭 조성, 시민 참여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지만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 존재
- 도시농업팀의 분청 이전이 어려울 경우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내 도시농업팀을 그대로 존치하되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지원

참고 문헌

농촌진흥청. 2021. 도시농업(농업기술길잡이 178).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농촌진흥청·농업기술진흥원. 2025. 8. 29.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매뉴얼

Meulen, Harold van der, Mariël Benus, Eva van der Burgt, ReneGrootscholten, Jakob Jager, Ruud van der Meer en Marcel Vijn, 2025.Kijk op multifunctionele landbouw; Omzet 2007–2023. Wageningen,Wageningen Social & Economic Research, Rapport 2025–033.

<웹사이트>

갈루스 정원(독일):

<https://una.city/nbs/frankfurt-am-main/gallus-garden-community-garden>

서울농부포털(서울도시농업): <https://cityfarmer.seoul.go.kr/>

학스펠더알레 클라인가르텐(독일):

<https://www.bbsr.bund.de/BBSR/DE/forschung/programme/refo/staedtebau/2017/kleingaerten/03-ergebnisse.html?nn=1659390>

힐링플랜트사회적협동조합 블로그: <https://blog.naver.com/hfnetwork/223545167396>

De Moestuin 농장(도시형 사회적 농업, 네덜란드):

https://sustainableurbandelta.com/this-urban-farm-in-the-netherlands-grows-healthy-food-and-communities/?utm_source=chatgpt.com

Hoeve Klein Mariendaal 농장(노인 및 성인 장애인을 위한 도시형 케어팜, 네덜란드)

<https://www.hoevekleinmariendaal.nl/leren-meedoen/>